

대학 신입생 휴학·자퇴 많은 이유보니... '물수능'에 반수생 늘어

전남대·조선대 작년 10명중 1명꼴 학업중단

<543명> <637명>

등록금 낭비 등 사회적 비용 줄일 대책 마련 필요

■ 광주·전남 4년제대학 신입생 휴학·자퇴 현황 (단위:명)

대학명	2014년 1학기			2014년 2학기			2015년 1학기		
	입학생	휴학생	자퇴생	1학기 휴학 연장자	신규 휴학생	자퇴생	입학생	휴학생	자퇴생
광주대	1,958	86	29	85	301	27	1,745	3	31
송원대	813	50	48	1	144	17	817	11	47
호남대	1,942	237	46	224	344	53	1,666	83	34
호남신학대	154	4	4	3	21	8	167	9	4
조선대	5,123	25	54	-	469	89	4,664	16	42
전남대	4,672	29	72	4	307	135	4,661	10	51
광주여대	1,081	4	20	-	35	21	964	-	13
광주가톨릭대	30	-	1	2	1	1	23	-	3
동신대	1,850	2	1	2	127	29	1,708	5	12
목포가톨릭대	138	2	6	2	5	2	137	1	3
목포대	1,901	139	91	108	310	28	1,865	109	31
초당대	849	-	16	-	41	34	828	2	11
순천대	1,882	16	23	14	178	25	1,870	9	21
목포해양대	682	64	7	11	85	32	737	21	1

<자료: 인민석 국회의원>

지난해 전남대에 입학한 지 1년도 못돼 휴학계를 내거나 자퇴한 학생이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쉬운 수능' 정책 때문에 '올해도 수능이 쉬울 테니 잘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반수'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쉬운 수능 정책으로 한두 문제만 실수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다보니 한 번 더 보겠다는 생각을 갖는 학생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공개한 '전국 153개 대학 2014년 1학년 휴학·자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대 신입생 4672명 중 543명이 1학년 때 휴학(336명)하거나 자퇴(207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반수생'으로 추정되는 이들 휴학·자퇴생 등은 전체 신입생 중 11.6%에 이른다.

조선대도 지난해 637명(휴학 494명·자퇴 143명)명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1년 이내 휴학·자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신입생 5123명의 12.4%나 된다. 일선 고교 진학부장과 입시전문가들은

들어가지마자 자퇴·휴학하는 원인을 '물수능'으로 꼽는 경우가 많다. "올해까지 3년째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되면서 잘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반수'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쉬운 수능 정책으로 한두 문제만 실수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다보니 한 번 더 보겠다는 생각을 갖는 학생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진로·적성과 무관하게 전공을 택하는 지원 경향도 휴학·자퇴생 속출로 이어지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다. 호남대는 1942명의 지난해 신입생 중 680명(휴학 581명·자퇴 99명), 광주대도 지난해 1958명의 신입생 중 387명이 휴학계를 냈고 56명이 학교를 아예 그만뒀다.

특히 일선 고교 교사 및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남대·조선대 등의 경우 내신 성적 위주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진로·적성과 별개로 보험 들 듯 안정권 학과에 합격해 놓고 재도전에 나서는 경향이 뚜렷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 스스로 조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 지역 대학들의 전형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 의원은 "입학했다가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학교를 그만두는 자퇴생들이 내는 등록금(1학기 300만원 수준) 규모를 고려하면 반수생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담양군과 추석맞이 분주 추석 앞두고 담양 전통한과가 인기다. 21일 담양군 청평면의 한과 공장에서 직원들이 전국 각지로 배송 될 유과와 강정 등으로 구성된 한과세트를 포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누수·담배냄새·개짖는 소리... 지긋지긋한 갈등 풀어주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개소 10일... 접수 내용 5건 보니

이웃 간 감정 다툼을 중재할 만한 마땅한 기구가 없었던 탓일까. 광주 남구에 지난 11일 문을 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는 개소 10일만에 일반 인에게는 '소소하지만' 당사자에게 '지긋지긋한' 갈등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21일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화해나 조정을 바라면서 갈등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5건. 사례별로는 아파트 누수로 인한 갈등(2건), 아파트 담배 냄새 갈등(1

건), 주택가 소음 문제(개 짖는 소리 1건), 전·현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간 다툼 등이다. 첫 사례는 센터가 개소하기도 전인 지난 8일 접수됐다. 남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아파트 뒷집에서 물을 쓰면 전철 배관 다로 물이 줄줄 새 들어온다. 이런 일이 4년째 계속됐지만 뒷집은 대꾸조차 없다. 어떡하면 좋으냐"며 문을 두드렸다. 올해 센터 운영 지역을 남구로 제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갈등은 남구에 국한되지 않았다. 광산구 수완지구에서도

"아파트 출입구 담배 냄새로 인한 갈등을 분쟁센터가 나서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또 남구 모 아파트의 경우 현재 입주자 대표회와 과거 입주자대표회 간 아파트 관리·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마을분쟁해결센터가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주택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마을분쟁해결센터가 나서 이웃을 설득해달라는 주민도 있었다. 그는 전화로 중재를 접수하면서 "주야간 번갈아가며 울타리 근하는데 옆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

룰 수가 없다. 이웃에게 찾아가 불편을 얘기 했지만, '애완견이라는 게 늘 짖는 게 아니냐'며 되레 큰소리쳤다"고 호소했다. 마을분쟁해결센터 관계자는 "조만간 접수된 갈등 사례의 상대방에게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 참여 의사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으로 조정인을 선정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소음, 악취, 주차 문제 등 일상에서 흔한 갈등을 지역 공동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취지로 운영에 들어간 민간 중재기구로, 주민뿐만 아니라 판사, 변호사, 교수 등 법률 전문가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임금 3.73% 인상 확정...준법투쟁 철회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올해 임금 인상률이 시급 3.73%로 확정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 버스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83.4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늦게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노조는 이를 표결에 부쳤다. 전날 밤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

까지 진행된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1274명 중 1028명이 참여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노조는 이날 돌입하려던 준법투쟁 방침을 철회했다. 노조는 '운전자의 날' 하루를 유급 휴가일로 추가하고 통상 시급 인상률을 3.8%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유급휴가 추가 요구를 거부하고 3.67% 인상을 제시하며 맞서왔다. /김형호기자 khh@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도박사이트 유명회사 계좌 텅 8명 구속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페이퍼 컴퍼니(유명회사) 계좌를 텅 일당이 붙잡혔다. 보성경찰은 21일 법인인간 카드를 발급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법인 계좌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문서 위조 등) 안모(31)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동책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안씨 등은 지난 2월23일부터 7월31일까지 전남·북 지역 18개 시·군 등기소에서 37개 법인인간 카드를 재발급 받아 51차례에 걸쳐 법인통장에 있는 2억9000만원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법인 이름을 확인한 뒤 인터넷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얻은 정보로 법인인간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등기소에서 인감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카드는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쓴다. 안씨 등은 인감도장·증명서, 위임장 등을 들고 다시 은행에 찾아가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을 받아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직접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입금해 도

박 사이트의 '유령법인'과 그 계좌를 확인,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피해를 봐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했다"며 "법인 인감 관리의 허점도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스포츠도도·비카라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가 피해를 본 법인에 대해서도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구치소 안가려 메르스 환자 행세 3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구치소에 가지 않으려고 가짜 중등 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행세를 하며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태경은 판결문에서 "메르스로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인

데도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러나 허위신고와 공무위 출동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 ○유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을 미납해 수배되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김씨는 구치소에 가거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것을 당분간 피하려고 거짓말.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익성 상가 매매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2~5층 (사우나, 주택)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2억, 용 6억) **매가 14억 5천**

2층 상가 매매 <나주 삼영동 >

(영산중고교,영강초교 정문앞)
1층 6칸 (올임대) 2층 2칸 (사무실,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보2천, 용 1억2천)
매가 2억 9천

3층 상가 매매 (수완동 4층중 3층)

월수익 **180만**
(보3천,용2억5천) 실투자금액 →1억
매가 3억 7천

010-7384-7800 / 010-6670-9800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매매(오피스텔)

-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점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8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점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9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6천만**
- 수완지구 3층상가(85평) 신한은행뒷면,모아P,T 6,000세대 앞 (용 2억5천)(보3천, 월수익 180만) → **매가 3억8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전망좋은,임대완료 (용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억8천만**
- 광산구 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광양 광영동 상아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4천만**
- 전남장성 시골주택 매매 장성명 2분! 장성읍 8분! (토지 160평) → **매가 4천5백만**

법률경매

수익성상가(근린상가/구분상상가)

- 서구 치평동 (토15평,건90평)감정가 6억3천5백→최저가 4억4천
- 동구 금동 (토19평,건149평)감정가 5억1천→최저가 9천3백
- 동구 금동 (토18평,건 134평)감정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
- 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 4.2평,건18.6평)감정가 2억9백→최저가9천3백
- 서구 치평동 (토30평,건56평)감정가 3억3천→최저가 1억8천(지하)
- 광산수원(토122평,건78평)감정가16억2천→최저가19억
- 북구신원동(토32평,건48평)감정가4억2백→최저가1억8천
- 서구 치평동 (토3평,건13평) 감정가 2억3천3백→ 최저가 1억6천3백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북구 두암동 (토60평,건154평)감정가74억→최저가2498cjs
- 동구학동 (토138평,건545평)감정가 23억→16억

수익성상가(근린시설, 통건물)

- 북구 누문동(토305평,건238평)감정가 11억7천→8억2천
- 광산구 남산동(토258평,건150평)감정가4억8천→최저가 2억6천8백
- 북구 중흥동 (120평,530평)감정가13억7천→최저가 6억1천5백
-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감정가 1억7천→최저가 6억
- 서구 농성동 (토 86평,건263평)감정가 5억7천→최저가 4억
- 북구 각화동(토337평,건509평)감정가 22억3천→최저가 22억3천
- 광산구 쌍암동 (정례식당) (토 516평,건920평) 감정가 36억7천 → 최저가 29억

모텔/주유소

-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357평,건680평)감정가27억→최저가15억
-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 (토154평,건419평)감정가 15억→최저가 8억4천
- 북구 두암동(주유소) (토204평,건114평) 감정가 11억9천→최저가 11억 9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매매,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경매컨설팅 교육

062-382-5500/010-6832-9700